

高麗時代 西京의 風水地理的 考察*

— 高麗初期 西京의 政治的 位相 과 關連하여 —

金基德**

머리말

- I. 西京의 風水地理
1. 西京의 主勢
2. 西京의 局勢
3. 西京의 水勢

II. 高麗初期 西京의 政治的 位相

1. '水德順調'의 意味
 2. 政治와 風水思想
- 맺음말

머리말

고려시대의 西京은 首都였던 開京 그리고 지금의 서울인 南京과 함께 三京體制를 구성하였던 지역이었다. 三京은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나, 西京은 고려전기에 그리고 南京은 고려후기에 보다 중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중요한 지역 특히 三京과 같이 수도 혹은 수도에 버금가는 곳은 항상 풍수적 조건이 결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당시의 風水思想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도읍지와 관련하여 풍수사상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풍수사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경우 풍수지리의 적용이 개인의 墓地 風水에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5-A00012).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전임연구원.

한 나라의 도읍의 선정 그리고 도읍의 이전이나 도읍의 보완 등과 같은 문제는 당시 지배층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도읍과 관련하여 항상 풍수지리적 조건이 결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風水的 해계모니가 당시 정치적 향배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동안 고려시대 開京과 西京의 政治史와 그와 관련된 風水的 논쟁을 다룬 선학들의 연구들은 모두 이 점을 잘 추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李丙燾의 연구를 시작으로, 河炫綱, 崔柄憲, 李龍範, 李泰鎭, 金杜珍, 金成俊, 洪承基, 鄭容淑, 閔賢九, 姜玉葉 등의 연구성과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 물론 이외에도 太祖代, 惠宗代, 定宗代를 중심으로 한 고려초기 政治史 논문과 對外關係를 다룬 논문, 그리고 고려중기 妙淸亂을 전후한 시기를 다룬 정치사논문들도 직간접적으로 政治와 風水地理라는 연구주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풍수지리설을 당시의 정치사의 전개과정과 관련시켜 이해했으며, 그 결과 풍수지리설이 정치가들에 의해 이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洪承基는 태조대의 풍수지리와 관련되는 여러 주장들을 중심으로 이 점을 더욱 파고들어, 요컨대 정치가의 권력은 풍수가의 권위가 요구되었고 반대로 풍수가의 권위는 정치가의 권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고려 초기의 정치와 풍수지리의 관계는 相補的인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²⁾

이러한 주장은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고려초기 風水的 論理를 치밀히 분석해 들어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 이들의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 제시될 것이다.

2) 洪承基, 1994 「高麗初期 政治와 風水地理」, 『韓國史市民講座』 14 一潮閣.

西京地脈根本論과 그와 관련된 太祖의 西京遷都論, 그리고 後百濟地域地勢背逆論과 그와 관련된 太祖의 後百濟遺民不用論 속에 담겨 있는 논리들의 모순을 파고 들어, 결국 태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풍수적 논리가 동원되었음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정치와 풍수지리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학들이 고려전기 역사의 전개과정을 정치와 풍수지리의 상호결합으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西京의 風水地理的 조건을 천착한 뒤 당시 서경을 둘러싼 정치사적 논의의 일단을 해석해 보고자 한 시도이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의 풍수지리적 조건 자체를 분석하는 작업은 역사학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일찍이 李丙燾의 연구 이후 風水地理 자체를 분석하는 시도는 그 맥이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일단 역사학의 본령은 아니다. 역사학은 실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실제 행위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思想 자체보다는 하나의 사상이 실제 사건과 결합되는 社會思想을 역사학에서는 연구주체로 한다. 그러나 불교사상이나 유교사상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듯이, 사회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의 경우에도 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당연히 요구된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글은 풍수사상과 관련된 당시의 정치사적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풍수사상 자체에 대한 천착에 바탕하여 당시의 정치사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도된 글이다. 그것은 洪承基 등의 연구처럼 당시의 정치사와 관련된 風水論理를 분석하여 그 상호모순성을 지적하는 차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李丙燾의 연구를 이어받아 어느 지역의 風水的 조건 자체를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당시의 정치사

를 재구성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開京의 풍수적 조건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본 글은 그 연장선상에서 서경의 풍수적 조건을 분석해 보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고려초기 서경을 둘러싼 정치사적 논의의 본질을 해명해 보고자 하는 작업이다.

I. 西京의 風水地理

한 지역의 風水的 조건을 분석함에 있어 그 분석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1) 主勢, (2) 局勢, (3) 水勢의 분석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³⁾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본래 龍·穴·砂·水라고 하는 개념이 풍수이론에 있었고, 실제 분석도 그 틀에 맞추어 시도되어 왔다. 이 중 穴이란 무덤터 혹은 집터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무덤이나 집이 아니고 도읍지와 같은 곳을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그 대상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바운더리(boundary) 개념이 되므로 穴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일단 생략할 수 있다.⁴⁾ 이렇게 되면 龍과 砂와 水가 남게 된다. 이것을 오늘날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 龍을 主勢, 砂를 局勢, 水를 水勢라고 표현한 것이다.

1940년대 李丙燾의 연구를 보면 비록 필자와 같은 분석기준으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철저하게 그러한 원칙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3) 金基德, 2001 「高麗時代 開京의 風水地理的 考察」 『韓國思想史學』 17.

4) 물론 그렇다고 도읍풍수에 있어 穴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언급하듯이 龍脈의 연장선상에서 주위의 砂(四神砂)와 水가 가장 잘 감싸주고 있는 곳이 中心穴이 된다. 도읍풍수에 있어서도 중심 宮闕의 입지는 가장 올바른 穴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도읍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 다른 요소, 즉 龍·砂·水와 달리 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병도 이후 풍수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논리적인 분석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다. 한 마디로 분석원칙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裨補風水를 지나치게 중시한 점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風水의 裨補에 대한 설명도 역시 위의 분석기준을 따라 가면서, 그때그때 主勢, 局勢, 水勢의 항목에서 主에 대한 서술 뒤에 補로서 설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 西京의 主勢

主勢란 풍수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穴場(무덤터나 집터)으로 들어오는 山勢의 흐름이다. 그것은 地氣가 入力되는 통로이므로 당연히 풍수를 생각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는 우선 主勢의 흐름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主勢를 이루는 山勢를 구분하여 太祖(山) - 中祖(山) - 小祖(山) - 主山으로 나눈다. 太祖山 · 中祖山 · 小祖山을 통칭 祖山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小祖와 主山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친족구조에서 先祖를 따지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主勢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主山이다. 물론 主山을 만들어주는 祖山의 역량도 중요하다. 祖山과 主山の 역량이 그 밑의 穴의 力量과 地氣의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來脈이 마지막에 도달한 主山の 力量이다. 풍수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는 바로 主山인 것이다.

西京의 主山은 錦繡山이다. 금수산은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牡丹峯과 乙密臺의 兩峯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수산의 생김새가 마치 모란 꽃처럼 생겼다고 하여 모란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모란봉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최승대(96m)로, 동쪽은 대동강 기슭에 베풀어져 있고 여기에 대동강의 깎기 작용으로 바위 절벽을 이룬 경치 좋은 청류벽이 있다.

금수산은 조선 영조때 편찬된 『山經表』에 의하면 靑南正脈에 속한다. 청남정맥은 백두대간의 낭림산에서 지막산을 거쳐 서남쪽으로 흘러 묘향산에 이른 후 계속 서남쪽으로 이어져 도회령, 황룡산, 자모산을 거쳐 삼화의 증악산까지 뻗은 산줄기이다. 그런데 황룡산에서 자모산으로 가는 줄기 외에 또 한줄기가 분지하여 이화산, 자화산으로 이어져 평양 북쪽 50리의 형제산으로 해서 평양 북쪽 5리의 금수산에서 끝난다.⁵⁾

開京과 비교하여 西京의 主勢는 약한 편이다. 우선 靑南正脈의 主脈이 아니며, 또한 가지친 맥이라 하더라도 西京의 主山인 錦繡山의 최고봉이 96m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主勢의 脈이 강력하지는 않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山勢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다. 즉 100m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여건에 따라 그 역량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西京의 주위는 山岳地帶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6m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主山의 역량으로서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大東輿地圖를 살펴보더라도 잘 나타난다. 大東輿地圖에서는 西京의 主山에 해당하는 곳까지 아예 脈이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다. 잘못 그랬거나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來龍脈이 弱화되다가 西京의 主山인 錦繡山에 와서야 겨우 솟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大東輿地圖 平壤 지역).

이러한 主勢의 역량과 특히 마지막 집합점인 主山의 力量으로 인해, 다음 절의 '西京의 局勢'에서 보는 것처럼 西京을 둘러싼 局勢가 뚜렷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局勢에서 靑龍과 白虎는 主山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主山을 만든 地氣의 흐름이 청룡과 백호를 만든다. 그리고 祖山에서

5) 『山經表』: 조석필, 1997 『태백산맥은 없다』

외청룡과 외백호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主勢의 역량은 主山의 역량에 영향을 주고, 主山의 역량은 청룡과 백호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主勢와 局勢는 주위의 水勢와 밀접히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2. 西京의 局勢

主勢가 來龍脈勢를 말하는 것이라면, 局勢는 四神勢를 말하는 것이다. 四神勢란 穴場을 보호하는 四方의 山勢로 흔히 四神砂로 표현된다. 四神砂란 前朱雀·後玄武·左靑龍·右白虎이다. 이 중 後玄武란 主勢의 來龍脈의 마지막인 主山과 동일한 것이다.⁶⁾

四神砂는 풍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풍수에서 主勢를 먼저 본 뒤에 다음에 보아야 할 것이 局勢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 局勢는 水勢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主山 錦繡山을 중심으로 左右로 靑龍脈과 白虎脈이 分枝하고 있다. 먼저 白虎인 右支脈은 을밀대로부터 西南에 뻗어 칠성문을 지나 만수대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의 小支脈을 나누어 가운데 長樂宮址와 같은 명당터를 안고 다시 南으로 달려 瑞氣山, 蒼光山을 東西에 가로 일으키고 있다. 靑龍에 해당하는 左支脈은 을밀대에서 좀 곧게 남쪽으로 달려 그것과 右支脈과의 사이에 龍樓宮址, 觀風殿址와 같은 명당터를 품으면서 겨우 長慶門址 부근에 이르러 그치었다. 西京은 청룡이 짧고 백호가 迂回하는 右旋局으로 대동강에 逆向하고⁷⁾ 따라서 局內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水流도 다

6) 主勢에서 언급한 主山이 局勢에서 四神砂의 하나로 다시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의 金基德의 글 참조(開京의 局勢).

7) 크게 보아 대동강은 평양의 동쪽에서 흐른다. 그리고 평양의 주된 맥은 백호 즉 평양 서쪽에 있는 맥이다. 따라서 대동강 물의 흐름을 평양의 백호가 반대쪽에서 맞이하므로 逆向이라고 한다. 逆向해야 산과 물이 제대로 만나는 것이다. 반대로 물의 흐름과 주된 山脈의 흐름이

右旋的으로 대동강에 흘러 들어간다.⁸⁾

그런데 이병도가 일찍이 제시한 평양지도는 정확히 그린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이병도가 그린 평양지도. 그것은 필자가 일제시대 5만분의 1 지형도로 복원해 본 것이나 현재의 평양지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그림 3): 일제시대 평양의 5만분의 1 지형도(그림 4): 현재의 평양시 지도. 차이가 있다면 外白虎의 흐름을 5만분의 1 지형도상으로는 잘 구분할 수 없는데, 이병도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잘 표시해 놓고 있다. 이병도의 그림에서 普通江의 흐름이나 보통강 쪽에 있는 山勢의 그림이 실제 지형도 상의 그림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병도가 그린 外白虎의 흐름도 신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병도는 이처럼 정확한 평양지도를 그려놓고서는 정작 그에 대한 풍수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 놓았다. 먼저 필자의 관점에서 이병도의 그림을 중심으로 풍수적 해석을 해보자. 西京의 경우 靑龍의 短縮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것은 主山の 역량과 다음에 언급할 西京의 水勢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靑龍은 그야말로 아주 짧게 겨우 있다가 만 격이다. 靑龍短縮에 대해서는 李丙燾도 같이 보고 있다

문제는 白虎에 대한 해석이다. 먼저 西京의 內白虎는 짧은 靑龍과 겨우 관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外白虎는 西京을 감싸 안지 못하고 無情하게 흐르고 있으며⁹⁾ 오히려 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끝에 가서 蒼光山과 瑞氣山을 만들고 있는바, 이 창광산과 서기산이야말로 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혀 西京을 감싸 안고 있지 못하다.

같은 경우를 山水同去라 하여 풍수에서는 나쁘게 본다. 그것은 山水同去의 땅은 生命의 필수 조건인 潤潤한 물의 요소를 제대로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李丙燾, 1946 『高麗時代의 研究』 을유문화사: 재판 1980 아세아문화사 101~102 쪽

9) 산의 흐름이나 물의 흐름이 대상 지역을 감싸 안으며 가지 못하고 직선으로 그냥 갈 경우, 풍수에서는 無情하다는 표현을 쓴다. 반대로 감싸 안으면 有情한 것이다. 직선의 無情 수준을 넘어 거꾸로 등을 돌리며 반대 방향으로 가면 뺨하고 있다(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四神砂의 역할은 그 안의 穴場을 四方에서 保護·凝縮 해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그 모양이 안을 감싸듯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호·응축해 주는 자세이다. 흔히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한다. 그것은 안을 감싼 것이 아니라 거꾸로 등을 보인 것이다. 두 팔을 벌려 혈장을 감싸 안은 듯이 해야 진정 보호하는 것이다. 반갑고 더욱 애정이 가면 두 팔이 더욱 조여진다. 그래서 좌청룡과 우백호도 서로 교차하듯이 지나가는 것을 더욱 좋게 본다. 그것을 關鎖 했다고 한다.¹⁰⁾

西京의 左靑龍과 右白虎는 서로 관쇄해 주지 못하고 있다. 부실하기 때문이다. 청룡은 심하게 단축되었으며 백호는 안을 감싸지 못하고 無情하며 오히려 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역시 朝山도 <그림 2>의 지형도 그림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안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의 모습과 달리, 西京의 四神砂를 대단히 잘 짜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西京의 風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다.

- ① 강가의 살 만한 곳으로는 평양 外城을 팔도 중에서 첫째로 친다. 대개 평양은 앞뒤에 백리나 되는 들판이 탁 티어서 명량한 까닭에 기상이 크고 넓다. 산빛은 수려하며, 강은 급하게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앞면에서 출렁거린다. 산은 들과 어울리고, 들은 물과 어울려서 평탄하고 수려하다. 강물이 넓고 커서 크고 작은 장삿배가 물결 가운데 들락날락하고, 층층 비위는 강 언덕을 둘러 있다. 서북쪽은 좋은 밭과 평평한 두렁이 지평선까지 펼쳐졌으니, 이것은 하나의 별천지이다. 內城에는 관청과 官屬의 집이 있고, 평민들은 모두 외성에 모여 산다. 외성이라는 것은 衛滿·朱蒙 때 土城을 쌓아서 외성으로 하였던 곳이다. 지금은 몽

10) 이때 물이 '감싸고 있다'는 표현과 '背하고 있다(등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앞의 金基德의 글 참조(<그림 1>: 산과 물의 등과 배). 風水에서는 감쌌는가 背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大東輿地圖는 이 점을 의식하고 그랬다고 보여진다.

개졌으나 아직도 성터는 남아 있고, 땅에 가득한 여염집이 이 안에 있다 남쪽으로 큰 강을 입해 봄·여름이면 여인들이 빨래하여 십리 거리에 날려 말리는 빨래가 선명하고, 빨래 방망이 소리에 갈매기와 오리가 놀라서 난다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하고, 저자의 가계가 변화스럽다 箕子 때부터 지금까지 더 번성하거나 쇠한 적이 없었으니, 또한 地理가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다.¹¹⁾

한편 星湖 李翼도 平壤을 山을 머리에 베고 江으로 띠를 두른 곳(枕山帶水), 둔덕을 깊어지고 물을 끼고 있는 땅(眞剛臨水)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平壤 風水에 대한 평가는 주된 초점이 主勢나 局勢에 대한 것보다는, ①의 첫머리가 '강가의 살 만한 곳으로'로 시작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水勢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물의 조건을 높이 평가하고 그와 아울러 山勢까지 어울린다고 평가한 것이다. 물론 물의 조건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필자는 물과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중환과 이익의 설명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¹²⁾

한편 1997년 북한을 직접 답사하고 북한풍수에 대해 글을 남긴 崔昌祚의 경우, 여러 가지 평양에 대한 풍수적 기록과 [평양성도], [평양지세도] 등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풍수와 관련해서 (1) 평양의 行舟形說과 관련된 견해, (2) 평양의 穴터가 어디인가 하는 점, (3) 自生風水에 대한 강조 등이 설명되고 있다. 行舟形說에 대한 언급은 뒤로 돌리고, 평양의 혈터와 자생풍수에 대한 언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에서 풍수적 명당 혈처는 어디인가 하는 점은 당연히 중요하다.

11)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12) 李重煥과 그의 견해는 오늘날 古典的인 설명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風水의 시각에서 그의 설명이 정확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흔히 風水書로 인정되는 그의 저작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만을 후일의 과제로 지적해 둔다.

최창조는 “평양의 명당 핵심자리는 바로 〈인민대학습당〉터”라는 김일성주석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도 〈인민대학습당〉이 평양 중구역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인민대학습당〉을 둘러싼 四神砂의 조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혈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창조 자신이 그린 지형도(그림 5): 최창조가 작성한 평양지세도와 이병도가 그린 지형도(그림 2)를 결부시켜 보면 명확히 드러나듯이, 〈인민대학습당〉터는 靑龍이 없는 것이다. 白虎의 상태도 無情하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청룡도 없고 백호도 無情한 곳을 어떻게 풍수상 혈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평양의 혈처는 그나마 내청룡과 내백호가 감고 있는 龍堰宮址・觀風殿址 부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崔昌祚의 서술에서는 건물의坐가 方位 위주가 아니라 地形 위주로 맞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전부 ‘自生風水’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자생풍수’는 표현을 하든 안하든, 본래의 풍수적 논리는 地勢 위주로 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동안 시도한 풍수관련 논문에서 전혀 坐向을 언급하지 않고 地勢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地勢 위주로 자리를 잡았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지적이 아닐까 한다. 그것에 더해 과연 평양의 四神砂의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山들은 감싸 안고 있는지 반대로 돌고 있는지 하는 점들을 최소한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四神砂 중에서도 主山과 案山의 조화와 균형 여부, 靑龍과 白虎의 조화와 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밝히고, 끝으로 물의 흐름이 四神砂의 지형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그것을 風水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西京의 水勢

앞에서 西京의 局勢(四神砂)의 조건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해석하였지만, 본 장의 水勢에 대한 해석 또한 기존의 견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水勢란 물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主勢 및 局勢와 밀접히 관련되면서도 역시 뚜렷이 구분되어 분석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범주이다.

서경의 풍수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水勢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병도는 서경의 풍수는 전체적으로 右長 左短의 형태로 右旋적으로 局을 東南에 펴고 있는 점과 을밀대, 모란봉의 後脈이 連綿 起伏하여, 北으로 順天 价川을 지나 멀리 백두대간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점은 얼마간 개정에 흡사한 바이지만 그 左, 右 前 3면에는 유려한 江流를 띠고 있다. 즉 東南에는 대동강에 직면하고 西에는 대동강에 유입하는 順安 法弘山 발원의 普通江을 끼고 있는 것이라든지, 兩江의 연안에 連綿한 특히 대동강의 左岸 일대에 전개한 平原 廣野와 같은 것이라든지 또 멀리 東南에 나열한 重峯은 자연 이것이 朝山이 되어 완전히 '三千粉黛回巧獻美'의 형태에도 비할 수 있는 것은 다 開京에 있어서는 얻어보지 못할 光景이라고 西京의 水勢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병도는 또한 태조가 訓要十條에서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된다고 한 것은 곧 이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다만 평양은 개성과 같이 重複한 山岡으로 포위되지 않았기 때문에 風氣 固密한 점에 있어서는 다소 개성에 미치지 못하나, 양측의 강류는 자연히 청룡, 백호의 外護를 이루고 대동강, 보통강의 兩江을 서로 합하여 그 사이에 평양의 一幅을 끼고 있는, 풍수가의 소위 '兩水夾處是真龍'의 吉格을 얻음은 물론이요, 군사상의 險要로서도 古來로부터 그 구실을 다해 왔다. 대동강의 하류인 江西, 龍岡에 있는 모든 山岳은 역시 그 水口를 관쇄하고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서경의 水勢에 대한 이병도의 설명에 대해 필자는 역시 의문을 갖는다. 그 초점은 과연 대동강의 흐름이 서경을 잘 감싸 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풍수상 吉地는 무엇보다 산이나 물의 흐름이 대상지를 잘 감싸 안아야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동강과 보통강은 서경을 잘 감싸 안고 있는 것 같다. 어떻든 두 강이 서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세밀히 보면 서경의 물의 흐름은 도처에 문제가 있다.

먼저 主山 主峰인 최승대의 대동강쪽이 깎여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서경의 청룡은 대동강의 영향으로 그 산줄기를 겨우 붙잡고 있는 수준이다. 이미 四神砂에서 언급했듯이 지나친 靑龍 短縮이 서경 풍수의 특징이며 단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동강의 영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동강과 보통강이 서경을 감싸 안아야, 이병도의 해석처럼 대동강이 靑龍의 外護가 되고 보통강이 白虎의 外護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동강의 동쪽 흐름은 결코 서경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東에서 西로 강하게 공격한 뒤, 밀으로 쪽쪽 흘러가면서 서경의 地勢를 빨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서경의 남쪽을 흐르는 동안에만 서경을 감싸 안고 있다. 그리고 남쪽을 지나면 다시 서경을 감싸 안지 못하고 밀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白虎 쪽의 보통강의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이병도의 지형도 그림에서 잘 보여주듯이¹⁴⁾ 그러한 보통강의 흐름이 어떻게 서경을 外護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보통강이 서경의 백호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찌른 뒤에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역시 서경의 백호의 地勢 기운을 빼가고 있는 것이지 결코 外護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백호가 서경을

13) 李丙歲, 앞의 책, 101~103 쪽

14) 필자가 이병도가 그린 지세도를 주로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필자가 확인한 5만분의 1 지형도와도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5만분의 1 지형도보다 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이병도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갖고 이병도와 다른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감싸지 못하고 밑으로 흐르고, 결국 창광산 서기산의 朝山이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西京이 '兩水夾處是真龍'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병도의 水勢에 대한 해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서경은 兩水에 의해 靑龍이 지나치게 短縮되고, 白虎는 無情하며 朝山 역시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大東輿地圖이다. 그것을 보면 청룡은 표시가 없고 內白虎 하나 정도가 감고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1) 참조.

그리고 이병도는 대동강의 하류인 강서, 용강에 있는 모든 산악은 역시 그 水口를 관쇄하고 있다고 했지만, 大東輿地圖를 보면 그렇지 않다. 대동강 밑의 산들, 그리고 보통강 옆의 산들이 전부背하고 있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山이 있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대상이 되는 땅을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강과 대동강 주위의 山들은 서경을 향해 결코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동강과 보통강의 전체 흐름이 결국 서경을背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대동강은 서경의 남쪽을 흐를 때를 제외하고는 서경에 無情하거나 反하여 흐르고 있다. 그 결과 주위의 山들도 대부분背하는 형국으로 서 있는 것이다.¹⁵⁾

다만 대동강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바뀌어 흐르면서 서경 남단을 흐르는 동안만 서경을 감싸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 서경 水流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 때문에 大東輿地圖를 보면 대동강이 서경의 남단을 흐르는 부분의 밑에 있는 산은 다른 산들과는 달리 서경을 감싸 안고 있다. 물의 감싸줌과 산의 감싸줌이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병도의 해석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이전 이중환이

15) 풍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자의 확인결과로는 大東輿地圖는 산과 물의 흐름을 그림에 있어, 실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대단히 정확하게 그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익의 해석과도 다소 차이있게, 西京의 水勢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뒤에 인용된 최창조의 해석(자료 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래 최창조는 필자와 같은 입장에서 서경의 수세를 본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이병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⑩>의 서술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서경의 水勢는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이다. <자료 ⑩>은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그대로 사용하여도, 오히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평양 남단 대동강 주위에는 섬들이 많다. 본래 섬은 山의 脈이 분명히 와서 주변보다 높아진 立體構造로 본다. 즉 섬은 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동강 주위에 있는 능라도, 양각도, 두루섬 등은 모두 山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서울의 여의도처럼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물로 보아야 한다.

섬이 山인가 물인가 하는 점은 풍수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西京의 풍수에서 主勢가 약하고 대동강이 제대로 감싸 안고 흐르지 못하므로 입체구조의 섬들이 있을 수 없고, 단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섬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II. 高麗初期 西京의 政治的 位相

1. '水德順調'의 意味

西京의 風水하면 무엇보다 '水德'이 연상된다. 그것은 高麗太祖가 언급

한 서경풍수의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서경의 水德이 순조롭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조를 중심으로 고려초기 國王들이 서경을 중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롭다' 혹은 '개경의 수덕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타당성있는 내용인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서경의 정치적 위상에 대응하는 서경의 풍수적 위상의 핵심은 바로 '水德이 순조롭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태조의 訓要十條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② 제2조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이 山水의 順逆을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이르기를 “내가 선정한 곳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면 지덕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하리라” 하였다. 짐이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후비, 조신이 각각 원당이라 일컬어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는 바이다. 신라말에 사원을 다투어 지어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 ③ 제5조 짐이 삼한 산천의 음우를 힘입어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요 대업만대의 땅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춘추동 사시절의 중간달에 순주하여 마무리기를 백일이 넘도록 하여 왕실의 안녕을 이룩하라.
- ④ 제8조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거슬리게 달리고 있으니 인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 아래 있는 州郡 사람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기를 변란케 하고 혹은 통합에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¹⁶⁾

서경의 풍수적 언급은 ③에만 나오고 있으나 참고로 訓要十條에 나오

16) 『高麗史』 2. 世家 太祖 26년 4월

는 풍수적 언급을 모두 제시하여 보았다. 태조가 분명하게 서경풍수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서경의 水德이 된다.

그런데 太祖의 訓要十條에서 西京의 水德을 언급한 제5조의 내용은 그 시기 풍수사상을 주도했던 道誥의 직접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都邑과 관련하여 道誥을 인용한 기록을 제시해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⑤ 道誥의 『松岳明堂記』에 말하기를 “西江(禮成江)가에 君子가 말을 어거하는 嶺國의 明堂의 땅이 있으니 태조가 통일한 丙申의 해로부터 헤아려 120년 뒤에 이르러 이곳에 나아가 궁궐을 지으면 國業이 延長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文宗이 太史令 金宗允 등에게 명하여 相地하여 이곳(長源亭)을 西江의 餅岳 남쪽에 지었다.¹⁷⁾
- ⑥ 『道誥記』에 이르러, “高麗의 땅에 三京이 있으니 松嶽은 中京이 되고 木覓壤(지금의 서울)은 南京이 되고 平壤은 西京이 되니, 11월, 12월, 정월, 2월은 中京에 머무르고, 3월, 4월, 5월, 6월은 南京에 머무르고, 7월, 8월, 9월, 10월은 西京에 머무르면 36국이 朝貢을 바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개국후 160여 년에 목역양에 도읍한다”고 하였으니 臣은 이 때가 바로 이 새 서울에 巡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¹⁸⁾
- ⑦ 臣은 또 그윽히 道誥의 『踏山歌』를 보건대 말하기를 “松城이 떨어진 뒤에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 三冬에 해뜨는 너른 벌판(오늘의 서울)을 말함 이 있도다”라고 하였고...¹⁹⁾

여기에 등장하는 道誥의 저작을 보면 太祖 처럼 西京 만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경보다 남경을 더 중시하고 있다. 물론 이때 인용

17) 『高麗史』 56, 地理 1, 貞州 長源亭

18) 『高麗史』 122, 方技 金謂皞

19) 위와 같음.

되고 있는 저작들이 실제 도선의 저작이거나 혹은 도선의 발언을 모은 바로 그것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⑤는 문종대의 기록이며, ⑥과 ⑦은 肅宗 때에 風水에 조예가 깊었던 金謂禪의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道誥의 논리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혹 여기에 제시된 책들이 後代에 道誥의 이름을 假託 하였다고 하더라도 논지전개에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본래 道誥이 西京만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訓要十條의 서술방식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訓要十條의 풍수관련 항목을 다시 생각하면, 만약 서경풍수를 특별히 강조한 제5조(③)의 내용이 道誥의 견해였다면 제2조(②)처럼 道誥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많은 제3조(④) 역시 도선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래 道誥의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西京의 水德이 開京보다 좋다는 것은 무엇보다 서경은 대동강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점은 物産의 이동이나 軍事上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개경보다는 서경이 큰 강에 인접해 있으므로, 물의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碧瀾渡의 융성에서 보듯이 개경 주변에도 예성강과 임진강이 있어 物流가 잘 유통되었다. 또한 서경처럼 강을 바로 끼고 있는 것이 반드시 軍事上으로 유리하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²⁰⁾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든 조선시대 李重煥과 星湖 李翼의 경우에도 平壤의 물의 조건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李丙燾, 崔昌祚 등 현대의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西京의 물의 조건을 아무 의심없이 긍정적으로 평

20) 崔昌祚는 孫子兵法을 인용하여 개경과 같은 지형은 戰術的 有利點과 戰略的 不利點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하였다(1984 『韓國의 風水思想』, 212쪽). 설혹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一長一短이 있으므로, 軍事上으로 개경보다 서경이 더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무엇보다 서경은 대동강이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그 자체로 水德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찍부터 太祖의 訓要十條에서 서경의 水德을 높이 평가한 대목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큰 강이 옆에 있다고 항상 水德이 좋은 것은 아니다. 江의 흐름이 지형조건과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藏風局과 得水局이라는 개념이다.

풍수에서는 바람직한 지형적 조건으로 '藏風得水'를 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藏風局, 得水局 운운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처럼 되었다. 필자의 이해로는 아마도 그 선구는 村山智順이 아닌가 한다.²¹⁾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개경은 장풍국, 평양이나 서울은 득수국 운운하고 있다.

- ⑧ 풍수에서는 이와 같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세를 장풍국이라 한다. 반면 예컨대 서울이나 평양처럼 일면 또는 양면이 큰 강에 접한 경우는 득수국이라 한다. 개성은 대표적인 장풍국의 땅이다.²²⁾

그러나 이렇게 장풍국이니 득수국이니 하는 말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풍수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藏風得水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장풍과 득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²³⁾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局勢와 水勢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치 穴場과 外水와의 거리를 주된 기준으로 득수국 여부를 논하는 것은 더욱

21) 村山智順, 崔吉城譯, 1990 『朝鮮의 風水』 599~602쪽.

22) 최창조, 1998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중앙 M&B, 110 쪽.

23) 서울은 한강이 가까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主勢와 局勢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한강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得水는 그에 걸맞은 藏風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풍수에서는 청룡에 해당하는 산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위해 감싸주지 않고 오히려 反背했으면 청룡은 없는 것이다. 反背한 청룡은 청룡이 아니다. 역시 물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山水同去하거나 오히려 穴場의 地氣를 빼앗고 있다면 得水를 한 것이 아니다. 결코 큰 강 여부나 그것이 가까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점으로 따질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서경의 경우, 바로 인접하여 큰 강을 접하고 있으니 그것은 득수 국이고 따라서 당연히 水勢(水德)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서경의 경우 대동강과 보통강의 물의 흐름은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큰 강을 연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건이 반드시 水德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개경의 水流의 문제점으로, 개경의 경우 산과 언덕이 너무 좁게 둘러 있어서 국면이 광활하지 못하고 북산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 나오는 계수는 모두 중앙 한 가운데 모이기 때문에 우기시에 수세가 급격한 점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수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순조롭지 못한 수덕을 진압하고 개경 전체의 지덕을 비보하기 위해서는 경중을 관류하는 諸水의 합류점이나 水口에 사원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²⁴⁾

그러나 개경의 '水德不順'의 주요인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부적 물흐름보다도 더욱 심각한 개경의 물흐름의 문제점은 개경의 수류의 흐름이 外水인 임진강을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쪽쪽 빠지는 물줄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靑龍과 案山, 朝山이 개경을 향해 제대로 관쇄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개경의 藏風의 부족함이 결국 水勢의 결정적 부족함을 만들어 낸 것이다. 內水의 문제도 藏風의 관쇄가 부족하여 물줄기를 완곡시키지 못하고 直流시키기 때문인

24) 李丙燾, 앞의 책, 92~95 쪽

것이다.²⁵⁾

결국 개경은 山水交會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경은 일찍부터 水德이 不順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太祖로 하여금 큰 강이 인접해 있는 서경은 상대적으로 水德이 좋다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경 또한 비록 큰 강을 면하고 있으나 水德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서경의 수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西京 行舟形說이다.

- ⑨ 전해오는 말에 “평양 지세는 물위로 배가 가는 형국이므로 우물과는 것을 꺼린다. 예전에 우물을 팠더니 읍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므로 드디어 메워 버렸다고 한다. 온 읍에서 공사를 막론하고 모두 강물을 길어다 쓰고, 땀나무를 운반하는 길이 멀어서 땀나무가 아주 귀한데 이것이 결점이다²⁶⁾”

『擇里志』에서는 대동강을 가진 평양의 장점을 언급한 뒤에, 다만 위와 같은 결점이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擇里志』의 견해를 아무 모순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병도가 표현한대로 서경풍수가 제대로 된 兩水夾處是真龍이라면 우물을 파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서경의 경우 대동강과 보통강이 서경의 지세를 外護하며 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兩江이 西京을 제대로 外護하며 감고 있다면 결코 우물을 파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兩江이 外護하는 것이 아니라 서경 地勢를 깎아내며 지나가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물이라도 파면 그 쪽으로 물이 올라와 질퍽한 땅이 되

25) 보다 자세한 開京 水流의 검토는 金基德의 앞의 글 참조(開京의 水勢).

26)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어 버리는 것이다.

行舟形說에 대하여 崔昌祚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⑩ 평양은 대동강이 거의 180도로 방향을 크게 바꾸며 만곡하는 물길의 공격사면 쪽으로부터 도시가 시작된다. 다행히 그것을 능라도와 금수산 줄기가 가로막아 완화시켜 주는 하지만 일단 큰 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에는 역부족이다. 뿐만이 아니다. 보통강 또한 금수산의 옆구리를 치며 만수대 쪽을 공격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홍수 시 협공을 받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지세가 된다. 게다가 시내 남쪽은 창광산과 서기간이 가로막아 시내로 들어온 물의 배수까지 막고 있는 형편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행주형 설화이며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평양의 수재에 항상 심리적으로 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런데 이 설명에 의하면 과연 서경의 水德이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위의 설명은 오히려 개경 水勢의 문제점을 지적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경의 水德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개경과는 달리 西京 바로 옆에는 큰 강인 대동강이 인접하고 있다는 이른바 得水局이라는 선입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풍이 되어야 올바른 장풍국이며 득수가 되어야 올바른 득수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장풍국도 득수가 되어야 하며 득수국도 장풍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水勢가 좋지 않기 때문에 行舟形說과 같은 것이 나온 것이다. 이 간명한 사실을 서경의 水德이 좋다는 선입관과 혼재하여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태조의 西京의 水德 운운은 개경과 비교하여 대동강이 인접해 있다는 정도의 단순 비교우위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 장

27) 최창조, 앞의 책, 55~57 쪽

에서 언급하겠지만, 訓要十條 이외에는 西京의 水德을 언급한 사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政治的 목적을 위해 풍수적 조건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太祖의 언급에 쉽게 매몰되어 서경의 수덕이 좋다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政治와 風水思想

西京의 風水의 조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高麗初期 歷代 郡王 들의 西京經營과 巡幸은 여러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물론 그 중심은 西京을 가장 강조한 太祖의 정책이었다.

먼저 태조가 서경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풍수도참설에서 개경의 水德이 좋지 못한 것을 비보하여 고려왕조의 기업을 연장하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견해²⁸⁾ 고려왕조의 권력구조에서 서경 위치에 착안하여 태조의 서경경영은 그곳에 왕실세력기반을 마련하여 개경세력을 견제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견해²⁹⁾ 太祖의 通婚圈을 분석한 결과 태조의 기반인 海上勢力과 平山을 중심으로 한 서경세력은 별개였다는 관점에서 태조의 서경경영은 그곳의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對後百濟戰에서 개경 밖에 안전한 군사적 배후지를 얻고자 한 목적도 있었다는 견해³⁰⁾ 등이 있다. 그 외에 국제관계에 주목하여 태조의 서경정책은 거란족의 침입위협에 대한 방비가 주목적이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北進政策에 보다 주목한 견해³¹⁾ 그리고 당시의 風水談論을 분석하여 태조가 자신의

28) 李丙燾, 앞의 책.

29) 河炫綱, 1967 「高麗西京考」, 『歷史學報』 35·36 합집.

30) 李泰鎮, 1977 「金致陽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17.

31) 秦榮一, 1987 「高麗諸王의 西京巡幸考」, 『제주대학교논문집』 25 : 閔賢九, 1992 「韓國史에

정치적 의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서경을 중시했다는 점을 주로 논증한 견해³²⁾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면 고려 초기 정치사의 해석에 있어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많은 異說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하고자 한다.³³⁾ 현재 많은 異見이 존재하고 있는 고려초기 정치사를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한 前提로서, 여기에서는 태조대를 중심으로 이 시기 정치와 풍수 사상에 대한 필자의 기본 시각만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먼저 본 절의 논의를 위해 관련사료를 제시해 둔다.

- ⑪ 왕이 群臣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평양은 古都인데 황폐한 지 이미 오래되어 荊棘이 滋茂하여, 蕃人이 그 사이에서 遊獵하고 인하여 侵掠하니 마땅히 徙民하여 이를 實하게 함으로써 藩屏을 굳게 해야 하겠다”라 하였다.³⁴⁾
- ⑫ 여러 신하들에게 諭示하여, “근자에 西京을 완전히 修補하고 民戶를 옮겨 이 곳을 채운 것은 地力에 의지하여 三韓을 평정하고 장차 여기에 都邑하기를 바랐던 바이다”라고 하였다.³⁵⁾
- ⑬ 3敎하여 가로되 我太祖께서 西京을 創置하여 宗室之親을 가려서 咽喉의 땅을 지키게 하여 매양 봄과 가을에 거둥하여 齋祭한 것은 戎虜를 막아 藩籬를 굳게 하고자 함이었다.³⁶⁾
- ⑭ 妙淸 등이 王에게 건의하기를, “우리들이 보건대 西京 林原驛의 땅은 陰陽家들이 말하는 大華勢인데 만약 이곳에 궁궐을 건축하고 옮겨 앉으면 天下를 병

있어서 高麗의 後三國統一, 『歷史上의 分裂과 再統一』(上).

32) 洪承基, 앞의 글; 金晷春, 1994 『高麗太祖의 西京遷都論』 『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33) 필자는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韓戰中世의 首都와 遷都』 한국사연구회 2003년도 학술대회 2003년 11월, 고려초기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건들을 풍수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작업은 곧 출판될 이 논문에서 시도될 것이다).

34) 『高麗史節要』 1, 太祖 원년 9월.

35) 『高麗史』 2, 世家, 太祖 15년 5월 甲申.

36) 『高麗史』 3, 世家, 成宗 9년 9월.

탄할 수 있으며 금나라도 방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8개 나라들이 모두 臣服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⁷⁾

먼저 고려초기 정치와 풍수와의 관련을 생각할 때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남아 있는 史料로는 서경풍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太祖의 발언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요십조의 제5조(③)였다. 그 내용은 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 태조 15년 기사를 보면(⑫ 참조, 西京의 地力에 의지하여 三韓을 통일하고 장차 도읍할 계획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태조가 언급한 서경풍수의 장점은 水德과 地力의 강조가 될 것이다.

이후 定宗의 서경천도 시도는 서경의 풍수와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나, 드러난 자료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 외에는 成宗의 경우 太祖의 訓要十條를 준용한 듯한 발언이 보이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⑬ 참조).

이처럼 서경풍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현재 太祖의 발언밖에는 없다. 그런데 서경풍수에 대한 태조의 언급을 다시 보면, 태조 15년 西京遷都計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⑫)과 후대에 遷都 언급은 없이 西京을 중시하라는 훈요십조 제5조의 발언(③)은 서경중시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水德'에 대한 언급은 훈요십조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太祖의 서경풍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당시 道誥의 견해도 아니며, 후대에 가면 서경이 풍수적으로 다른 지역과 유독 구별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려중기에 가서 妙淸과 관련하여 강조되는 大華宮은 기존의 西京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위의 ⑭에서 강조되는 大華(花)宮은〈그림 1〉의 大東輿地圖에 잘 나타나 있듯이 平壤과는 떨어져서 오른쪽 위에

37) 『高麗史』 127, 列傳 40, 叛逆 1, 妙淸.

山의脈이 잘 내려와서 감싸고 있는 곳이다. 대화궁에 대한 검토는 다음으로 돌리거니와, 일단 서경 풍수에 대한 강조라고 하더라도 태조가 언급한 사항과 뒤에 묘청 등이 강조한 대화궁의 것은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만을 지적해 둔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고려초기 서경풍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전적으로 태조의 발언일 뿐이라면, 무엇보다 태조가 언급한 서경풍수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서경의 水德이 순조로워 서경은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서경의 물의 조건이 풍수적으로 특히 강조될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대동강과 보통강이라는 兩江이 보다 가깝게 있다는 점에서 개경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론을 넘어서서 특히 강조될 정도로 서경의 水德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검토결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水德이 좋아서 西京이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라는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물과 산의 어울림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서경은 그저 우리나라 山勢의 흐름에서 하나의 맥일 뿐이며, 특별히 우리나라 地勢의 근본이라고 강조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서경풍수와 관련되는 점들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太祖는 자신의 政治的 목적을 위해 서경의 풍수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西京이 태조 당시에는 본래 廢墟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³⁸⁾ 참조, 더욱 태조가 정치적 활용을 위해 풍수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지금까지 제시한 고려초기 정치와 풍수사상에 대한 몇 가지 정리는 물

38) 그 정치적 목적은 '왕실세력기반의 확보'와 '북진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 점과 관련된 논의는 주 33)에서 밝힌 바와 같이 遷都論을 다룬 後考에서 다룰 예정이다.

론 정치를 위해 풍수를 이용했다는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실제 風水의 考察을 통해 논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차후 고려초기 풍수지리와 관련된 정치사를 해명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세 가지 점을 첨언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지만, 政治가 風水를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분위기가 풍수사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사의 전개에서 風水的 체계모니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사의 전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풍수사상을 이용하여 합리화시켰지만, 그렇다고 그 점이 바로 풍수논리의 허구성이나 문제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또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당시 정치적 의도에서 풍수논리를 가져다 합리화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풍수논리들은 상호간에 모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점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구사되었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그 중에서 본래의 風水的 論理와 圖讖의 측면, 더 나아가 政治的 意圖에 의해 왜곡된 풍수적 논리를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처럼 서경의 풍수를 분석하였을 경우, 과연 서경의 풍수적 위상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 풍수적 관점에 입각한 '用處'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서경은 천 년을 기약하는 首都의 입지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라, 상업도시 혹은 관광위락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땅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 역시 구체적인 풍수의 人事 적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開京 및 西京 그리고 南京(漢陽)을 비교고찰하는 별고를 통해 보다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西京의 풍수지리적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풍수연구의 기본원칙은 現場을 가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실제 現場을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서경풍수를 분석한다는 한계점을 본 글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관련문헌과 그림, 지형도, 사진 그리고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서경의 풍수적 조건을 나름대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자의 해석이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점이 많았으므로, 자연히 논증과정에서 이 분야 연구성과를 남긴 특정학자들의 이름이 지나치게 반복되었다. 이 점 양해를 바란다.

그리고 서경풍수에 대한 분석의 바탕 위에서 특히 서경풍수의 장점으로 내세워지면서 西京經營 더 나아가 遷都試圖 까지 이어진 '水德'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해 보았으며, 끝으로 고려초기 정치사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풍수지리적 검토를 통한 몇 가지 기본시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본 글의 논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경의 풍수적 조건을 主勢, 局勢, 水勢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來龍脈의 흐름은 靑南正脈의 끝자락으로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태조대부터 언급된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라는 표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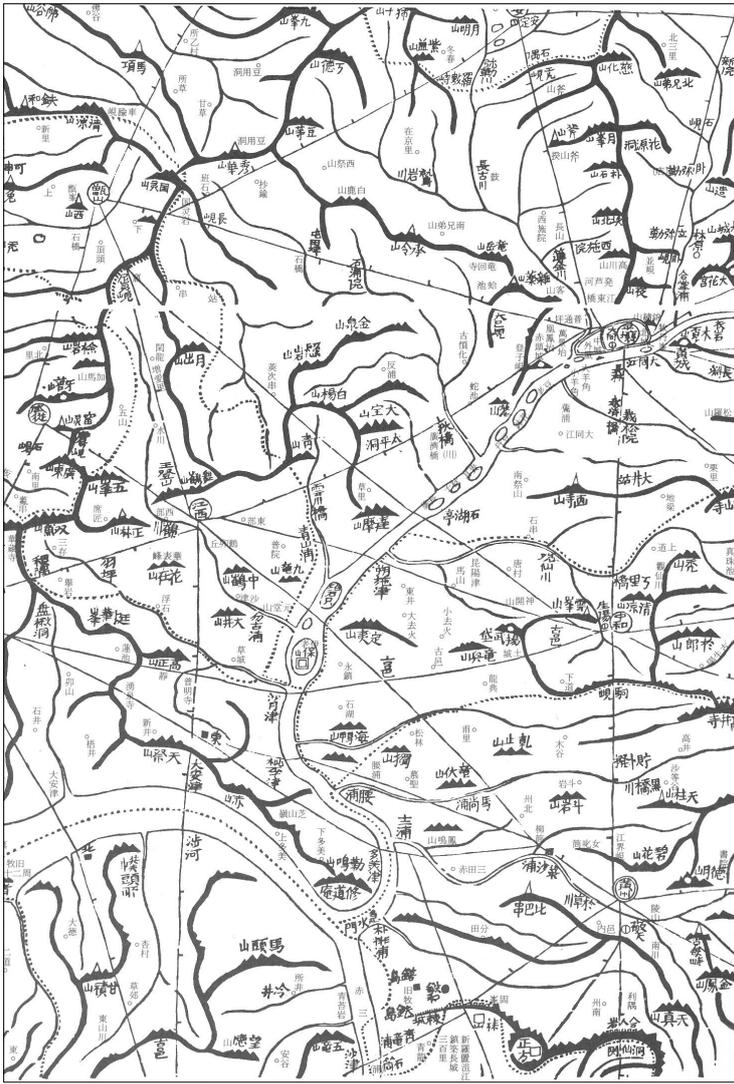
局勢는 水勢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西京의 局勢는 물이 제대로 감싸고 돌지 못하는 관계로 대단히 취약하였다. 靑龍은 거의 단축되었으며, 白虎는 짧은 內白虎를 제외하고는 감싸 안지 못하고 無情하게 흐르고 있었다. 朝山도 마찬가지로 西京을 감싸 안지 못하고 거꾸로 背하고 있었

다. 이는 물의 흐름이 無情하거나 혹은背하고 있는 것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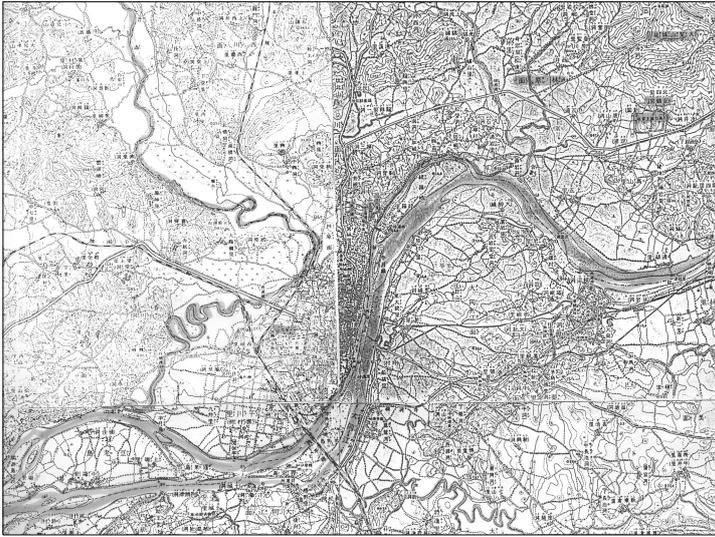
이러한 풍수적 검토의 바탕 위에서 다음으로는 西京의 水德이 순조롭다는 高麗太祖의 발언을 집중 검토하여 보았다. 과연 西京의 水德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은 당시 政治와 風水地理說과의 관계를 밝히는 핵심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는 단순히 대동강과 보통강이 가까이 있다는 비교우위 정도의 수준이지, 특별히 풍수적으로 서경의 물의 조건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흔히 얘기되는 平壤의 行舟形說도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高麗太祖는 政治的 意圖에 의해 西京風水를 특히 강조한 것이 된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시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실제 風水的 考察을 통해 논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차후 고려초기 풍수지리와 관련된 政治史를 해명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풍수지리와 관련된 고려초기 정치사를 세밀하게 다시 추적하는 작업은 後考로 돌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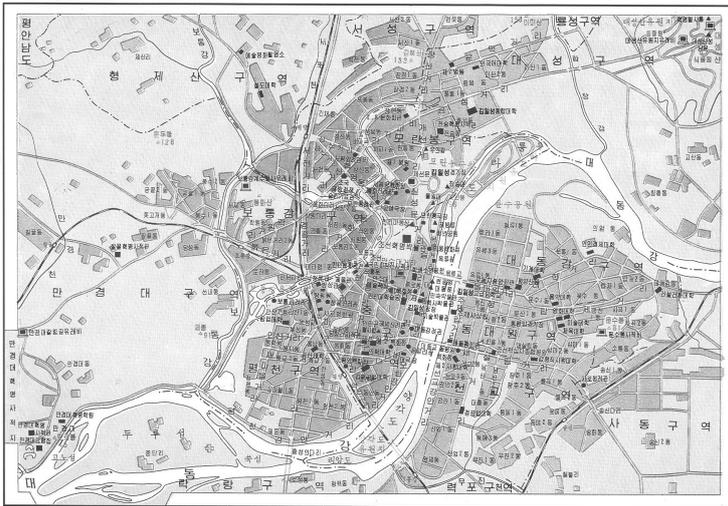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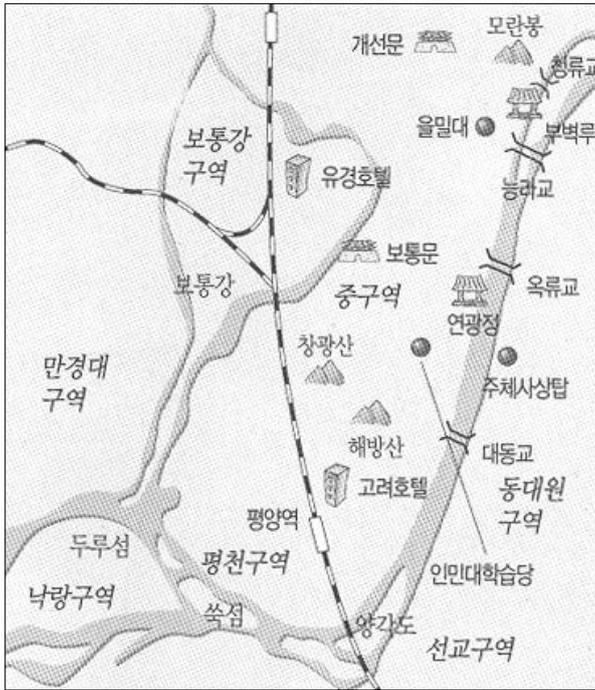
<그림 1> 大東輿地圖 平壤 지역



<그림 3> 일제시대 평양의 5만분의 1 지형도



<그림 4> 현대의 평양시 지도



<그림 5> 崔昌祚가 작성한 平壤地勢圖

KCI

A Topographical Analysis of the Location of
Koryo dynasty's Seogyeong(西京) area
-The Political Status of the Seogyeong capital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dynasty -

Kim, Ki-Duk

In this research, a Pungsu topographical analysis of the Koryo dynasty's Seogyeong capital region will be attempted. Related historical texts, ancient maps and pictures, current days' geographical data and prior researches will all be consulted.

The researcher's examination was concentrated upon the subject of 'Merit of Water(the Virtue in such Quality)', which was often cited in historical texts as the most prominent advantage of the Seogyeong region's geographical position. Such perception also triggered a series of attempts at moving the Main capital to this area. Considering the supposedl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eogyeong region, it would have only been natural that the region had some potential influences upon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yo dynasty. This matter should be addressed, and will be dealt with i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n the opening of this article, the Pungsu topographical position of the Seogyeong region is examined, in terms of the Jusae(主勢/Main Posture), Guksae(局勢/Partial Posture) and Susae(水勢/Posture of the Waterways) factors. According to an extensive examination, it seems that the flow of the so-called Rae-Yong Maek(來龍脈) is merely constituting the tail section of the Cheongnam Jeong-Maek(青南正脈), so it would be a presumptuous act to deem its importance overly grave. We can see that such comments referring to the Seogyeong area as having been the Source of the Korean peninsula's main skeletal spine(地脈), which have frequently appeared in historical texts, are rather lacking any considerable basis.

In the meantime, the Partial posture and posture of the Waterways, seem to have been deeply related to each other. The Partial posture of the Seogyeong

region was very weak, as the waterways were not fully encompassing the area. As a result, the Cheongryong(靑龍) factor seems to have been stuck in an alienated status. And the Baekho(白虎) factor, with the exception of the Inner-Baekho(內白虎), was not sufficiently engulfed either. The waterways were almost flowing outward, and the Ansan(案山) and Josan(朝山) mountains were also sitting in a position of turning their back on the area.

Yet the Seogyong region was being mentioned as an area where the Merit of Water was indeed significant and the water flows were noticeably fluent. Moreove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mments in that regard were coming from the founder of the Koryo dynasty, King Taejo himself.

Determining the truthfulness in King Taejo's comments, is crucial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ngsu topographical theories(風水地理說) and the politics at the t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er's examination, King Taejo's comments seem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elative closeness of the Daedong-gang(大同江) and Botong-gang(普通江) rivers to the area. It is rather certain that, what he was referring to could not have been any distinctive advantages in Pungsu topographical terms, because such advantages do not exist. The frequently quoted theory of 'the Boat-sailing figure'(行舟形說) of the Seogyong area was also devised because of the problems detected in the water flows of the Pyeongyang(平壤) area in the first place.

So it becomes clear that King Taejo was merely emphasizing the Seogyong area's meritorious advantages out of his own political intentions and agenda. Facts like this may already be well-known ones thanks to the prior researches, but proving the authenticity of such view was a task somewhat lacking in previous studies. Methodologies designed to deliver proofs based on such topographical analyses in determining the nature(including causes and results) of certain political events would profoundly benefit the researchers' future studies. This researcher certainly hopes so, and will engage in following studies with such approach.